

“새 컴퓨터 덕에 한국적응 더 쉬워졌어요”

글 유인종 편집부 / 사진 송은지 핀스튜디오



매주 화요일 20여명의 중도입국청소년들이 2시간씩 컴퓨터를 배운다. 오른쪽 사진은 센터를 학교처럼 다니고 있는 송가림(왼쪽)·최용길 군

수원이주민센터(대표 안기희)는 중도입국청소년과 이주여성, 외국인노동자에게 교육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민간단체다. 이곳에서는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음악 등을 가르치고 있는데, 작년 중반까지는 교육에 어려움이 많았다. 기증받은 중고 노트북 7대와 자체 구입한 기타 2대가 있었지만, 노트북이 구형이고 악기가 부족해 다양한 교육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랬던 센터에 경사가 생겼다. 아산재단의 ‘2014년 사회복지공모사업 지원단체’로 선정돼 노트북 15대와 디지털피아노 1대, 전자드럼 1대, 어쿠스틱 기타 5대 등을 지원받았기 때문이다. 최수정 사무국장은 “노트북 사양이 좋아서 강사 선생님들이 더 좋아한다. 악기도 새 것이고 종류도 많아져서 이주민들이 수시로 다루며 마음을 달랜다”고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센터는 10여명의 이주여성이 대상인 컴퓨터 교육을 주 2회 진행한다. 일요일에는 역시 20여명의 이주노동자에게 피아노 등을 가르친다. 이주민은 중국 국적이 80% 이상이고, 나머지는 베트남·태국·캄보디아 출신이다.

부모와 떨어져 살다가 최근 한국에 온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

센터는 학교나 다름없다. 오전 10시~오후 1시에 한국어 교육, 오후 1시~2시 점심식사(센터 제공), 오후 2시 이후 파워포인트·포토숍·동영상 편집 등의 컴퓨터나 한국어 보충·댄스 등의 수업을 받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국적 또한 대부분 중국이다.

지난 3월 9일부터 센터에 나오고 있는 중국 출신의 최용길(19) 군은 아직 한국어가 서툴러서 통역의 도움을 받아 “센터의 컴퓨터 교육이 도움이 많이 된다. 앞으로 디자인을 배우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 군과 같은 날 센터에 나오기 시작한 송가림(17) 군 또한 “친구 소개로 센터에 오게 됐다. 아직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센터에서 교육을 열심히 받아 한국에서 잘 살아 보겠다”고 통역을 통해 말했다. 최수정 사무국장은 “최근 조선족에 대한 일부 여론이 좋지 않은데, 우리나라에 온 지 얼마 안 된 청소년들을 사회가 따뜻하게 품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복지단체들이 있습니다. 아산재단은 1977년부터 4,100여 복지단체에 376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산재단은 복지단체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독거노인, 저소득계층의 자녀, 외국인근로자, 노숙인, 미혼모, 폭력피해여성, 새터민, 다문화가족 등 외롭고 힘든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